

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
2022.04.20.

「선진한국」을 여는 우리의 선택

진 념

- 1 한국 경제·사회발전 60년-자랑과 보람**
- 2 오늘의 한국경제, 위기인가?**
- 3 선진 한국을 위한 비상(飛翔) 전략**
- 4 시급히 극복해야 할 ‘리스크’**
- 5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책무**

1 한국 경제·사회발전 60년-자랑과 보람

- | 지구촌 최빈국에서 **선진국 대열**에
- | 산업화의 성공 **'모델'** **한강의 기적**
- | 농경사회 → 경공업 → 중화학공업 → **첨단산업**
- | 원조 **받던** 나라에서 원조 **주는** 나라로
- | 경제발전과 **정치민주화** 실현

'위기'를 '기회'로 - 국민 저력

자랑과 **보람**

2 오늘의 한국경제, 위기인가?

- 뉴노멀(new normal)- 저성장 추세
- ‘글로벌’ 패권경쟁: 무역·기술·안보
 - 팬데믹, 환경·기후 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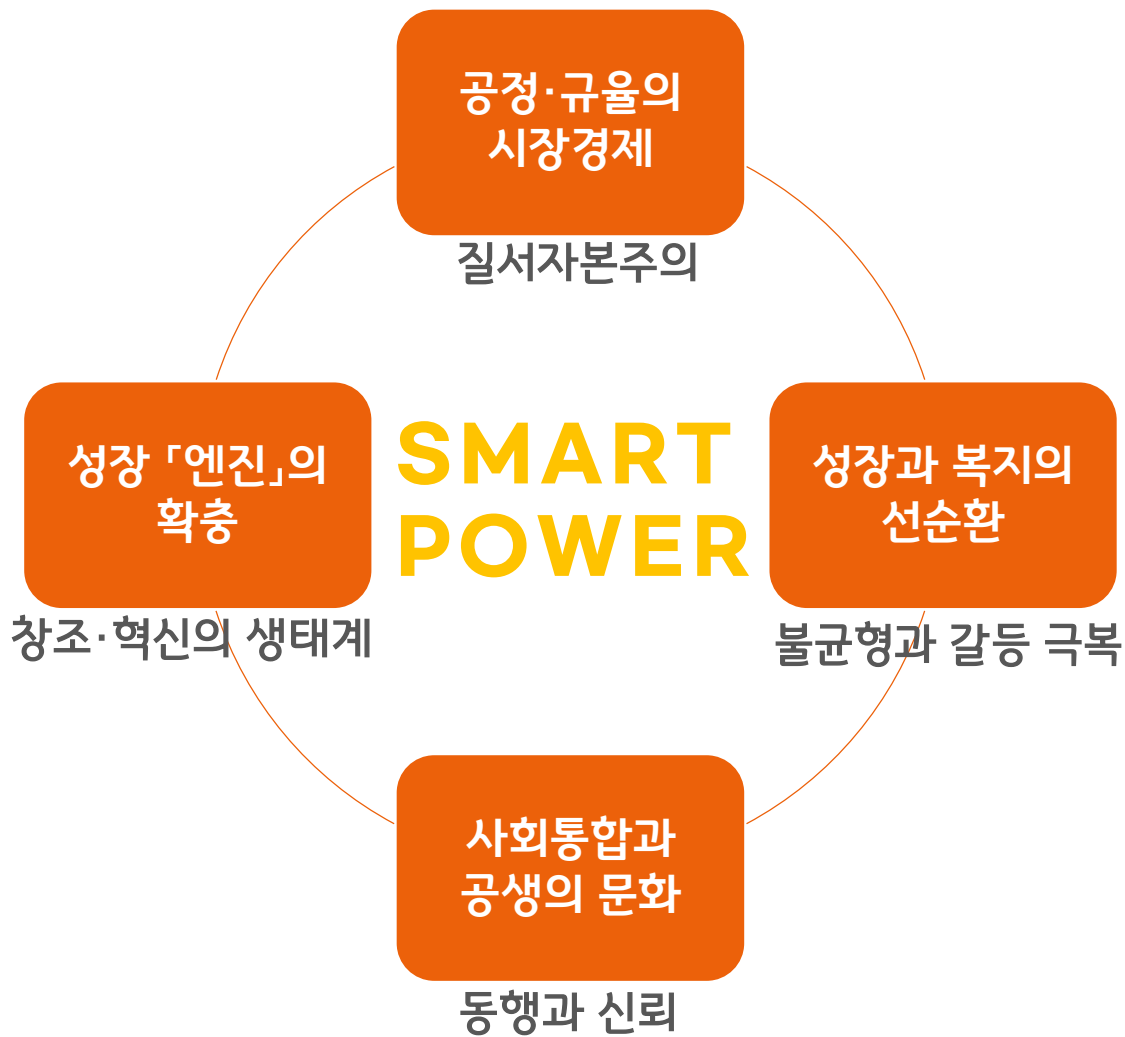
대전환의 시대:
엄중한
대외 환경

한국경제
리스크

- 성장 잠재력 하락: 소득 3만불의 함정
- 고용사정의 악화 및 소득 불균형
- 주력산업 경쟁력의 위협
- 서비스산업 장벽은 철벽-성장동력 제약
- 경제의 정치화: 분열·갈등 조장

경제 활력이 식어가고 있다

3 선진한국을 위한 비상(飛翔) 전략



- 내외 환경은 매우 엄중
- 사회통합의 신성장 전략

- ✓ 하면 된다 - 자신감
- ✓ 세계 1등 위기관리 능력
- ✓ 한국인의 DNA와 역동성
- ✓ 한류와 K-POP 열풍

* Smart Power: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창의·혁신 으로 융합해 가는 힘

3-1. 공정·규율의 시장경제 | 질서자본주의

- | 자유기업 활동의 보장 – 도전과 혁신 기업가 정신
- | 경제규율과 무관한 규제·간섭 배제
 - 글로벌 수준 규제 정비
- |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 업종에 집중
 - 기업경영과 '돈벌이' 구분
- | 경제단체 「공정, 투명, 책임 경영」 선언과 실천

공정경쟁 질서 준수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

3-2. 성장 「엔진」의 확충 | 창조·혁신의 생태계 조성

- | 기술·브랜드 역량으로 승부 – First Mover
- | 경제영토 확장과 글로벌 경영 역량 확충
- | 서비스 산업 「빅뱅」 - 물류·의료·문화·관광·교육
- | 소프트웨어·콘텐츠(창조산업) 집중 지원
- | 「벤처」 정신·「창업」 풍토 확산(K-POP)

창조적 인재양성은 혁신경제 필수요건

3-3.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| 지속 가능한 포용성장

| 중부담·중복지 – 중기 프로그램 마련

| 출산·보육·육아는 미래 투자

| 복지프로그램 전면 재점검 – 전달체계 정비

| 일하는 복지 > 성장잠재력 키우는 복지 > 나누는 복지

| 노·사·정 대타협으로 고용 안정 및 유연성 제고

성장이 복지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환상

3-4.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 | 동행과 신뢰

| 「원칙과 기본」 - 믿음·희망 함께 나누는 사회

| 아름다운 동행 - 앞선 사람에게 박수, 뒤쳐진 사람에겐 더 많은 기회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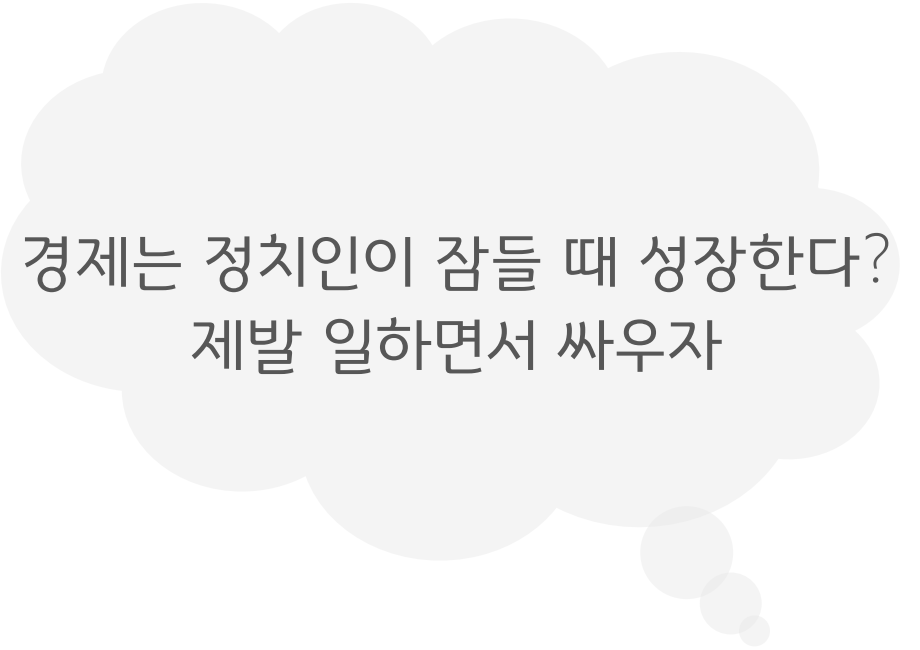
| 기득권 계층의 절제와 자기헌신

| 공동체 문화·의식·가치의 정립 - 신뢰(trust)

4 시급히 극복해야 할 '리스크'

4-1. 정치권의 혁신, 정치 리스크 극복

- |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- 「파트너」 불인정
- | 미래 비전보다 과거에 매몰 - 「패거리 정치」와 흠집내기
- | 갈등 조정 - 갈등 조장
- | 정당 지배구조 - 민주화 멀어
 - 자율적 의원 의사 결정제약 - 공천권
 - 제도권 밖 사회단체에 의존
 - 정치 아닌 법적 판단에 맡겨 - 정치의 포기?
- | “정치꾼은 다음 선거를,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”



경제는 정치인이 잠들 때 성장한다?
제발 일하면서 싸우자

엄중한 외부환경, 민생 어려운데도 정치권은 싸움만

4-2. 정부 리스크, Smart 정부

- | 경제정책의 요체는 실용성과 지속가능성
- | 정부가 꼭 있어야 할 데 – 개입해서는 안될 데
- | 정부의 책임: 국가안보·국민안전·법과 질서 확행
- | Eco 생태계 조성하고 기업들 뛰게 해야
- | 쉬운 일만 찾지 말고 어려운 일 해결에 주력
- | 함께하는 개혁: 경영계·노동계·정부

시스템과 거버넌스 재정립 – 권한과 책임 분명히

5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책무

5-1. KDI와의 인연: “비판적 동반자”

1972 - 1973 '3% 물가안정시책'
1975 - 1976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
· 형평(equity)과 사회개발정책 도입

1998 - 2000 공공투자관리센터
· 예비타당성조사
재정·공공부문 개혁

1970s

1980s

1990s

2000s

1980 - 1988 경제안정화 시책
제5차 경제·사회발전5개년계획
국민연금, 최저임금, 의료보험제도

2004 한국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(KSP)
2013 「코리안 미래클」 시리즈 시작
2015 글로벌지식협력센터(GKEDC)
2014 - 2016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

5-2. KDI의 주요 성과



5-3. 지금은 성찰의 시기

- | KDI의 위상과 핵심 역량의 재평가
- |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싱크탱크 ‘플랫폼’ 역할
- | 전문성, 현장성에서 타 연구기관과의 차별성
- | 연구과제 선정과 결과물에 대한 수요자 평가
- | 국책,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
- | 주요 정책 전환기, 정책대안 공론화 역할
- | 정부와 시장의 시각 차이를 해소하는 노력

5-4. 다시 시작하는 다짐으로

연구 ● 연구과제 선정, 연구결과 평가 ‘시스템’ 정비

협력과
소통 ●

연구기관 간의 업무 조정과 협력

수요자(정부, 시장 등)와의 소통 - 마케팅 배가

거버
넌스 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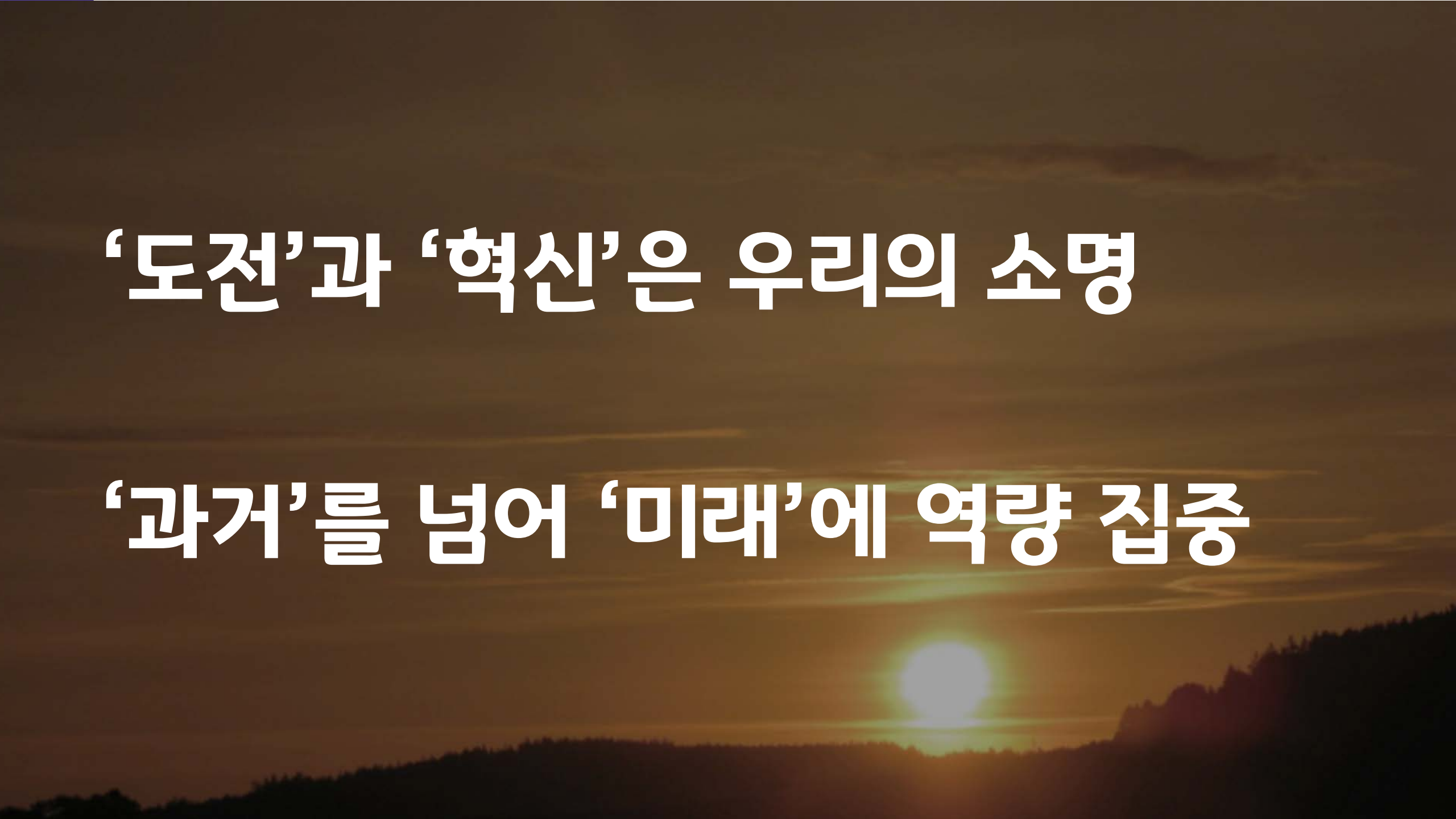
한국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(KSP) → 선택과 집중

홍릉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운영제도 개선

거버넌스 정비 -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

특정 정권의 연구원 → 「국민의 미래」를 여는 연구원으로

소명과 보람

A sunset scene with a bright sun low on the horizon, casting a warm orange glow over a dark, silhouetted forested hillside. The sky is filled with soft, horizontal clouds.

‘도전’과 ‘혁신’은 우리의 소명

‘과거’를 넘어 ‘미래’에 역량 집중